



신안 퍼플섬

‘심쿵’ 절경·‘꿀맛’ 별미... 오색 힐링이 손짓하네



담양 죽녹원

‘유배지’ 취급받던 작은 섬 관광지 변모
불편했던 시골, 특색 넘치는 체험장으로
광활한 자연·바다 천혜 관광자원 탈바꿈
MZ세대, 카페 투어하며 인증샷 열풍
시니어, 산길·해안길 걸으며 웰니스 치유
전남도 ‘관광 1번지 목표’ 관광상품 개발



곡성 기차마을

전남으로의 초대

※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했던 섬. 인구 130여명 밖에 없는 섬 속의 섬을 찾아 몰려온 국내외 관광객만 연 40만명에 달했던 섬.

신안 퍼플섬 얘기다. 매주 주말이면 섬을 찾아 가려는 차량들로 긴 줄이 섰고 박지도와 반월도로 이어지는 퍼플교, 섬 마을 주택가 지붕, 도로, 가드레일, 자전거, 쓰레기수거함에 포장마차, 붕어빵 등 온통 보라색으로 물들인 섬 곳곳에서는 인증샷을 찍는 관광객들이 넘쳐났다.

전남의 외딴 섬이 색채마케팅을 입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보랏빛 섬’으로 탈바꿈하면서 SNS 등을 통해 ‘사진작가들의 꿈의 섬’, ‘인증샷 성지’ 등 화려한 별칭도 생겨났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세계최우수관광마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었다.

※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 뒤쪽 바닷가, 여수 고소동 바닷가, 담양 관방제림과 목포 북항 일대의 공통점. ‘인증의 세대’라 불리는 MZ세대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로 알려진 ‘인증샷’ 핫플레이스다. 무안공항 뒤 갯벌과 바닷가를 앞마당 삼아 조성된 카페들에는 오션뷰, 농장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젊은 관광객들의 차량이 늘어서고 여수 고소동과 담양 죽녹원 일대는 카페 투어를 즐기는 MZ세대의 투어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커피 거리로 유명하다. 커피도 중요하지만, 감각적인 공간에 머물고 싶다는 젊은층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다. 목포 북항 일대도 북항쪽 바닷가 전망을 볼 수 있는 카페를 찾는 젊은층이 매일 긴 줄을 서는 곳이다.

오랫동안 ‘유배지’ 취급을 받을 정도로 외면받았던 전남의 작은 섬이 ‘시골벽적인’ 관광지로 변모해 수십만명의 관광객들이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와 즐기는 곳이 됐다.

섬 뿐 아니다. 불편한 교통 등으로 눈길조차 안주던 시골은 번잡하지 않게 쉬면서 특색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끝없는 해안선과 광활한 갯벌 등은 버려진 땅의 천덕꾸러기가 아닌,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으로 거듭나면서 주목받고 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낯선 곳에서 자신만의 버킷 리스트를 이룰 수 있는 개성있는 공간으로, 50세 이상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노립’과 ‘시골스러움’을 갖춘 탈도시화의 마지막 공간이라는 특수성 등이 차별화된 매력을 갖춘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치도 확인하다.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지난 2021년 전남을 찾은 방문객은 전년도(3877만5900명)보다 9.3% 늘어난 4240만 명을 넘어섰다.

2002년도 비슷하다.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수는 지난 해 10월 일찍이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으로, 주춤했던 관광객 발길이 빠르게 찾아지고 있다는 게 여수 시 분석이다.

여수만이 아니다. 주민 수도 고작 130여명에 불과했던 신안 퍼플섬은 연 40만명의 발길을 불러들였고 인구 4만6000명의 담양에는

3년 전만 해도 179개이던 카페가 213개로 늘어났다. 구례 조그만 시골 마을에 위치한 빵집은 주말이면 이른 오전부터 번호표를 받아 기다리는 관광객들로 긴 줄이 선다. 강진 가우도 앞 바다를 빙 돌로 보는 돌레길을 걸으려는 관광객들이 지난 2022년 상반기에만 370만명이 넘었다.

전남도가 ‘전남 방문의 해’인 2023년, 국내 관광객 1억명, 해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남으로의 여행’을 본격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환경은 좋다. 우선, 새로운 시대의 여행 트렌드가 전남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로 꼽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2025년 관광 흐름으로 제시한 트렌드는 ▲뉴노멀시대, 위케이션 확산 ▲여행경험의 나노화 ▲광한 여행 스펙트럼 확장 ▲지역 관광의 진화 ▲탄소중립 여행의 부상 ▲모두가 즐기는 여행 실현 ▲디지털 전환시대의 신(新) 융합 관광 확대 ▲웰니스 치유 여행 가속화 ▲일상에 스며든 관광 ▲스스로 성장하는 지역관광의 앞 글자를 딴 ‘새 시대 여행’ (New Era Trip) 이다. 전남관광재단도 이같은 트렌드를 감안, ‘청정·안심·스마트 뉴노멀 관광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남의 경우 섬, 바다, 너른 갯벌, 산과 바다를 경계삼아 걷는 산길·숲길·해안길 등 전남지역 깨끗한 이미지의 해양·자연 자원은 웰니스 치유 여행과 탄소중립 여행 등 자연지향의 여행 수요와 맞아 떨어지는 관광 자원이다.

일과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위케이션 확산으로 일상이 여행이 되는 시기라는 점도 호재다. 겉보기엔 평범한 농촌 같지만, 노는 방식, 먹을거리·볼거리가 모두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22개 사군 자체를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활용할 더없는 기회다. 독특한 민속문화, 남도음식은 지역을 오뎀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사할 수 있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알뜰 소비를 추구하는 ‘체리슈머’ (Cherry-summers)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 ‘트렌드 코리아 2023년’의 키워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여행객들이 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전남만의 관광 상품으로 불가항력적인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행객들을 불러들일 대체불가능한 여행지도 넘쳐난다. 담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는 담양 죽녹원, 곡성 기차마을,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 해상케이블카, 여수 세계박람회, 구례 천은사 상생의길, 순천 만국가정원 등이다. 순천만정원에서는 올해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린다.

고흥 애도, 보성 대한다원, 신안 퍼플교는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고 완도 청산도, 강진 가우도, 장흥 정남진도 요시장은 ‘2017-2018 한국 대표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전남 관광지다. 또 화순 고인돌 유적,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장성 필암서원 등 곳곳에 산재한 세계유산 문화자원과 전남만의 문화재, 유명 영상 속 전남 여행지 등은 글로벌 여행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관광 자원을 20대부터 70대까지 선호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여행 상품으로 발굴, 소개하면서 전남을 국내 관광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수도권의 변방 취급받던 전남이 국민 모두에게 ‘꼭! 가고싶고, 또! 오고싶은’ 관광의 중심지로 기억되는 것, 올해 전남의 야심찬 목표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